

여야, 매머드급 지원 유세...광주 서구를 보선 '민심잡기' 총력전

4·29 광주 서구를 국회의원 보궐 선거가 9일 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광주 서구를 보선 지원을 위해 여야가 매머드급 지원 유세에 나서면서 치열한 선거전을 예고하고 있다.

광주 서구를 보선 지원을 위해 여야가 매머드급 지원 유세에 나서면서 치열한 선거전을 예고하고 있다.

광주 서구를 보선 지원을 위해 여야가 매머드급 지원 유세에 나서면서 치열한 선거전을 예고하고 있다.

거라는 점을 강조하며 새정치민주연합에 서운한 점은 많겠지만, '정권교체'라는 대의를 위해 전폭적인 지지를 당부하기도 했다.

권 고문은 특히 무소속 천정배 후보를 겨냥, 내년 총선과 내후년 대선 승리를 가로막는 '당의 배신자'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이는 천 후보의 초반 기세를 꺾고 향후 천 후보의 바람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맞서 천 후보는 권 고문 등의 광주 방문을 구시대적인 모습이라고 맞서고 나섰다. 천 후보측은 이날 "미래로 나아가야 할 때 지금 이대로 과거에 안주하지는 않는 것 아닌지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면서 "호남민심과도 거리가 멀 뿐만 아니라 호남의 미래, 나라의 미래를 열어 가려는 광주시민들의 열망과도 동떨어진 것"이라고 권 고문 등 동교동계의 광주

권노갑 고문 "총선·대선 승리 위해 조영택 지지해달라"

김무성 대표 등 오늘 현장 최고위...정승 후보 광폭지원

천정배 "권고문 광주방문, 시민의 열망과 동떨어진 것"

방문을 비난했다.

천 후보를 개혁 후보로 내세운 시민정치위원회도 이날 성명을 통해 "새정치민주연합은 도를 넘는 구대정치로 시대를 역행하고 있다"면서 "그간의 광주시민을 불모로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후안무치한 행동에서 한 치의 변화도 없다"고 주장했다.

동교동계 출신인 염동연 전 의원은 "광주 민심의 요구는 '변화'로 집약되고 있으며 천 후보는 이를 실현시킬 강력한

부가 대거 참석한다.

새누리당 정승 광주 서구를 후보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광주 서구를 발전'을 위한 정책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광주시당은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사업 등 광주 현안을 건의한다.

김무성 대표 등 지도부는 현장 최고위원회의 이후 남구 노대동 빛고를 노인건강타운을 방문해 배식봉사활동을 한 뒤 광주 하계U대회 양궁장에서 운영현시장으로부터 대회 브리핑을 받고 경기장을 둘러볼 예정이다.

또 중소기업 대표 및 소상공인 대표 간담회를 갖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광폭 행보'를 통해 표심을 자극할 계획이다.

한편 본격적인 선거기간 개시일을 앞두고 여야는 '유세 도우미'들의 진용도 갖췄다. 서울 관악을 선거에서 새누리당

은 오세훈 전 서울시장, 새정치연합은 박지현 전 원내대표를 앞세웠다.

인천 서·강화를 선거에는 새누리당이 충청 출신이 많은 점을 고려해 이인제 최고위원을 내세웠고, 새정치연합에서는 강화 출신인 문재인 대표의 부인 김정숙씨와 고 김근태 상임고문의 부인 인제근 의원이 '구원 투수'로 나선다.

광주 서구에는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이 전면에 나선 계획이며, 새정치연합은 동교동계를 전면 배치해 안방시수 작전에 나선다. 경기 성남중원 보선은 김문수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장이 신상진 후보를 발탁하고 나서 두고 있고, 새정치연합에서는 전대협 의장을 지낸 운동권 출신인 오영식 최고위원이 선거지원 총책을 맡았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최원길기자 cki@kwangju.co.kr

권노갑 "천정배, 자신을 키워준 당에 등 돌렸다" 맹비난

"친노 갈등과 선거 지원 별개 서운한 감정도 곧 풀이될 것"

새정치민주연합 권노갑 상임고문은 9일 "물심양면으로 키워줘 오늘의 자신이 있게 만들어 준 당에 대해 등을 돌리는 행위"라며 광주 서구를 보궐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천정배 후보를 강도 높게 비난했다.

권 고문은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천 후보는 (당)원내대표와 법무부장관 등 요직을 두루 거치고 국회의원을 4선이나 했다. 당이 배려하고 밀어주지 않았다면 지금의 천정배가 어디 있었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자리를 두루 가진 사람이 당을 헌신짝 버리듯 당을 나간 것은 정상적인 정치인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번 보궐선거와 내년 총선에서 승리해야 2017년 호남인들의 염원인 정권교체를 이룰 수 있고, 김대중 대통령이 펼쳐왔던 정책을 이어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당 지도부와 갈등을 겪었던 '동교동계'의 재보선 지원에 대해서는 "지난 7일 점심을 먹으면서 선거지원을 하기로 합의를 봤다"면서 "적극적으로 선거에 임해주고 당부했고, 이를 나에게 위임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친노계에 대해 서운한 점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하지만 이번 선거와 서운한 점은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또 권 고문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서로 간의 노력이 필요한데, 이번 선거를 계기로 서로 감정이 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 최원길기자 cki@kwangju.co.kr



새정치민주연합 권노갑 상임고문(오른쪽 두번째)이 9일 오후 광주 서구를 국회의원 보궐선거 새정치민주연합 조영택 후보 선거운동사무실에서 김원기, 임채정 상임고문과 함께 조후보를 지지하며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유승민 '新보수' 파장...與 정책·노선논쟁 격화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로 여권이 어수선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메가톤급 노선투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이다.

유 원내대표는 지난 8일 국회 대표연설에서 집권여당의 원내대표로는 이례적으로 현 정부의 경제·재정·조세정책을 정면 비판했다.

뿐만 아니라 "보수의 새 지평을 열겠다"면서 성장과 복지가 함께 가는 균형발전, 양극화 해소, 부자와 대기업의 세부담 확대, 재벌개혁 등 기존 여당 입장에서 보면 파격적인 제안을 쏟아냈다. 특히 야당의 직전 대통령을 높이 평가하고 합의정치를 강조하면서 정치 진영의 '창조적 파괴'도 시도했다.

당장 당내에서 찬반양론이 거세게 일었다. 당내 노선 논쟁에 불을 댕긴 셈이 됐다.

유 원내대표의 당내 파트너인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9일 "유 원내대표가 우리 당의 외연을 넓혔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며 "새로운 보수"라는 화두를 의원총회나 당정책협의 등을 통해 조율하고 정책으로 발전시켜야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유 원내대표가 '개인 정치'를 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박상옥 인준 장기화 조짐 국회의장의 손에 달렸나?

오늘까지 경과보고서 채택 안되면 '직권상정' 가능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가 대치하면서 정의화 국회의장의 선택이 주목받고 있다. 대법관은 국무위원과 달리 인사청문회 이후, 본회의 임명동의의 표결을 거쳐야 임명할 수 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이 박 후보자의 '박총철 고문치사 사건' 가담 의혹을 제기하며 청문회 추가 개최와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 본회의 표결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적법 절차를 거쳐 인사청문회를 마친 만큼 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조속히 국회 본회의를 열어 대법관 공백 사태를 해소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러한 여야의 충돌로 임명동의안 처리 문제에 대한 정의화 국회의장의 선택이 주목받고 있다.

인사청문회(5조)는 '청문회를 마치고 3일 이내에 경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채택하지 않을 경우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야가 지난 7일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했기 때문에 10일까지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면 정의화 의장이 본회의에 인준 표결 안건을 부의할 수 있다.

그러나 정의화 의장이 지금까지 여야 합의를 통한 안건 처리라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어 무리하게 권한을 행사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청문특위 위원장이 야당 소속이라는 점에서 여당이 단독으로 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한 뒤 본회의까지 처리하는 수순을 밟기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결국 임명동의안 표결은 이번 주를 넘겨 대법관 공백 장기화에 따른 여론 악화에 부담을 느낀 여야가 타협점을 찾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광주지역 자산 1위 금고

소액(3억이하) 다수인을 위한 우대 대출

아파트 담보, 분양잔금 대출 특판

한도는 최고

금리는 최저

- ☑ 햇살론대출
- ☑ 임대보증금대출
- ☑ 정부정책자금대출
- ☑ 일일상환대출

※ 근저당 설정비, 감정평가 수수료 면제



- 서동본점 720-2828
- 양림지점 652-9203
- 월산지점 364-7557